

『용성지』의 여류 누정시 연구

유육례*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광한루의 역사와 누정시의 성립
3. 누정의 건립과 시단의 발전
4. 옛날기생·봉선·연옥의 누정시
5. 맺음말

〈국문초록〉

용성(龍城)은 남원의 옛 이름이다. 남원의 옛 읍지인 『용성지』(龍城誌)에는 광한루의 중수기와 함께 여류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누정은 당대의 교양을 갖춘 선비들이 작시(作詩)를 한 사람을 누정시인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가 누정시(樓亭詩)이다. 누정이 건립되면 누정 창건의 유례와 누정기문이 지어지며 누정에 대한 제영이 이루어진다. 누정시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름 있는 누정의 경우 현판에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누정이 쇠락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성지』에 여류 누정시가 있는데, 누정시라 하면 대부분 사대부 문학의 전유물이다시피 한데, 『용성지』에 옛날기생이 지었다는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광한루 현판에는 기생 봉선과 연옥의 누정시가 당시의 사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옛날기생의 누정시에서는 떠난 임의 소식이 없음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누정미를 의인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기생 연옥의 누정시에서는 춘향가의 주인공인 이몽룡이 등장하면서 자신은 이몽룡 같은 낭군을 만나 절개를 지키고 싶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한 여인

* 조선대학교

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광한루와 오작교를 배경으로 한 누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생 봉선의 누정시에서는 떠나는 임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 차원 넘어서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누정미가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련의 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 용성지, 여류 누정시, 누정시, 남원 광한루, 봉선, 연옥

1. 시작하는말

『용성지』(龍城誌)는 1699년(숙종 25년) 이도(李燾)·최여천(崔與天) 등이 편찬한 것을 1752년(영조 28년) 보유(補遺)를 붙여 간행한 남원의 읍지이다. 11권 2책. 목판본. 책머리에 최시용(崔是翁, 1646~1730)의 서문이 있다. 읍지의 항목마다 구지(舊志)와 신증(新增)을 구분했는데, ‘구지’라 기록한 부분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동일하고 그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을 ‘신증’이라 표시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고자 전국에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라는 중양의 명령에 따라 이 읍지의 편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된 『용성지』는 17세기말의 남원지방의 향촌사회의 실정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해주는 종합적인 자료로서 귀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용성지』에는 광한루의 중수기와 함께 여류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누정은 당대의 교양을 갖춘 선비들이 작시(作詩)를 한 사람을 누정시인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가 누정시이다. 누정이 건립되면 누정 창건의 유례와 누정기문이 지어지며, 누정에 대한 제영이 이루어진다. 광한루의 누정시를 보면 현재 남아있는 것의 경우 이름 있는 누정시의 경우 현판에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누정이 쇠락하고 증축하는 과

정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성지』¹⁾에는 학교(學校), 사사(寺社), 성곽(城郭), 누정(樓亭), 풍속(風俗), 성씨(姓氏), 유현(儒賢), 행적(行蹟), 소인(騷人), 제영(題詠) 등이 전하고 있다. 『용성지』에는 황수신의 광한루기, 신흘의 광한루기, 신감의 광한루중수서 등이 전하고 있다.

용성지에 광한루에 대한 글이 많이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광한루는 남원뿐만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누정이다. 광한루에 조선조 전기에 이곳에 와서 지은 광한루 제영으로는 성임(成任)을 비롯하여 서거정(徐居正)·허심(許深)·이석형(李石亨)·김시습(金時習)·강희맹(姜希孟)·정철(鄭澈) 등의 시가 있다. 백호 임제(林悌)는 광한루에 와서 이곳을 구경하고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 이르며 작시제영함으로써 유명해졌다.

광한루는 조선초에 설립되어 조선시대를 관통한 남원의 역사적 상징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경치를 즐기고 만남과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성들의 편견적인 의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류시조는 그 작자가 대부분 기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몸

1) 『용성지』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구지(舊志)에 대방(帶方), 고룡(古龍), 용성(龍城)이라 한다. 옛날 남원의 이름은 용성이다. 용성이란 본래 백제(百濟)의 고룡(古龍)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방(帶方)의 고국(古國)이다. 용성지(龍城誌)를 처음 간행한 해는 조선조 숙종, 25년(1699)이다. 용성지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용성읍(龍城邑)이 있게 된 이래 그 사이에서 낳고 죽은 사람이 몇 천만인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얼음 녹듯이 없어지고 능히 탁연유립(卓然有立)하여 유명(流名)이 불후(不朽)한 사람이 또한 그 몇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마침 영조(英祖) 때 성주(城主)(남원 부사)로 부임한 李公(李公) 구정이 조정의 명을 받아 성종 10년(1479)에 편찬된 『여지승람』의 신증의 내용을 수찬(修纂) 진달(進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도와 최여천은 『여지승람』은 『여지승람』 신증의 내용을 좀더 추연하여 따로 『용성지』를 만들되 그 범례와 격식을 여러고을에서 바든 바를 널리 참고하고 절충하여 그 장점만을 취하고 곧 록재하여 오래오래 전할 것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용성지』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은 찬수유사 이도와 최여천, 간행유사 송휘도, 교정유사 우순필과 양성래였으며 서문은 동량 최시용이 썼다. 용성지는 남원향교에서 보관하여 오던 영조 28년(1752)에 간행된 『용성지』의 유일본이 전하고 있다. 『용성지』.

은 비록 천민에 속하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지만, 정신세계만은 자신의 것이었다. 그들의 시조나 교양은 당시 사대부들과 견주어 어느 면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왜냐하면 양반사대부들과 풍류 속에서 상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이른바 ‘여류 누정시’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인다.

누정시라 하면 대부분 사대부 문학의 전유물이다시피 한데, 『용성지』에 옛날기생이 지었다는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광한루 현판에는 봉선과 연옥의 누정시가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동안 누정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여류 누정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여류 누정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광한루의 역사와 누정시의 성립, 옛날기생, 봉선, 연옥의 누정시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광한루의 역사와 누정시의 성립

남원을 옛날에는 대방이라 불렀는데, 피와 물이 수려하고 기름진 땅이 백리에 걸쳐있어 참으로 하늘이 준 부(府)의 땅이라. 신라 문무왕이 남원을 신라에 병합하였으며, 684년(신문왕 4)에 이르러 이곳에 소경을 두었다. 경덕왕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남원)으로 바꾸고, 이에 소경(南原小京)이라 하였다. 고려 940년(태조 23)에 이르러 부로 바꾸었으며, 고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대방군이라 하였다가 그 뒤 남원군으로 바꾸었다. 1360년(공민왕 9)에 이르러 다시 부로 승격되었다.

신증(新增)에는 1690년(숙종 16) 경오에 개인의 하녀 금향(今香)이가 주인을 해하고자 피한 변고로 말미암아 도호부라 부르던 것이 강등되어 현(縣)이라 부르게 되었다가 1699년(동왕 26)에 다시 올려 부라 하게 되었다.

광한루는 조선조 초에 황희(黃喜, 1363~1452)가 세운 광통루(廣通樓)의

판 이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퇴폐하여 1434년(세종 16)에 남원부사 민공(閔恭)이 새로운 누각으로 고쳐지었고, 1437년(세종 19)에 부사 유지례(柳之禮)가 계속 이어 단청하였다. 그로부터 7년뒤 정인지(鄭麟趾)가 이름을 고쳐 광한루라 하였다.²⁾ 구지(舊地)에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은, 나의 고향의 경승을 감상하게 되면 나의 고향보다 나은 곳이 없고, 더욱이 이 곳 광한루보다 나은 곳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다.

『용성지』에 기록된 강희맹(姜希孟)³⁾이 쓴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知名南國廣寒樓	남쪽나라 광한루 이름 널리 알려졌으니
六月登臨骨欲秋	유월에 광한루에 올라 내려다보니 가을 분위기라네
桂影忽來天宇逼	계수나무 그림자 하늘 가까운 곳에서
朱欄曲處過牽牛 ⁴⁾	붉은 난간 굽어진 곳 견우가 지나가네.

광한루는 우리나라 남쪽에서 꽤나 유명한 누각으로 알려져 있었다.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은, 나의 고향의 경승을 감상하게 되면 나의 고향보다 나은 곳이 없고, 더욱이 이 곳 광한루보다 나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강희맹은 6월에 남원에 내려와 광한루에 오른다. 요천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에 우거진 꽃과 나무숲이 마치 속세를 떠난 선계의 풍광을 보는 듯하다. 밤이라 강물과 숲이 내는 서늘한 냉기는 마치 가을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술에 취해서 일까? 물결 위에 춤추는 달빛이 그윽한 환상을 연출한다. 난간 끝에 화사한 달빛은 견우가 하늘에서 내려

2) 『龍城志』.

3) 강희맹은 1424~1483년(세종 6~성종 14)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운송거사(雲松居士)·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이다. 지돈령부사 석덕(碩德)의 아들로, 인순부윤(仁順府尹)이었고 화가였던 희안(希顔)의 동생이며, 세종의 이질(姨姪)이다. 강희맹은 세종의 처조카(姨姪)로 시·그림·글씨에 뛰어났다. 세종 때의 안견·최경 등과 더불어 3절(三絶)이라 불린 강희안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1447년(세종 29)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할 만큼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세조 때 『경국대전』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에도 참여할 정도로 학식과 문필이 뛰어나다.

4) 『龍城志』, 卷之二.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광한루가 월궁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용성지』의 누정시를 보면 강희맹의 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으로는 이석형, 성임, 허침 등이다. 이석형의 누정시와 허침의 누정시에서는 ‘청허부에 살고자 하지만’, ‘청허부에 있고자 하나니’ 청허부가 나오는데 「천보유사」(天寶遺事)에 의하면 중국 당나라 명황이 유람하고, 천신이 있는 천부를 발견하였는데, 그 방(榜)에서 이르기를 ‘광한청허지부(廣寒淸虛之府)’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로 연유하여 달의 세계 또는 달나라의 궁전을 광한전이라고 고쳐 부른 까닭은 그곳의 경치를 아름다운 달의 세계에 비유하여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왜적이 침입한 정유재란으로 원래의 누각은 소실되고, 지금의 광한루는 1626년(인조 4)에 이르러 부사 신감(申鑑)이 중건한 건물이라 한다.⁵⁾

다음으로는 황수신의 「광한루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태허(太虛)를 싸서 감추고 그렇게 넓어 밖이 없고, 마치 거짓처럼 바람을 타고 공중을 나는 것과 같아 마치 태양이 서쪽으로 달리는 것과 같으며, 별들이 촘촘히 별려 있고, 달은 그림기둥에 걸려 있는 것 같으며, 복사꽃은 가지에서 떨어지니 하늘 위 달에 있다는 궁궐을 방불케 한다. 광한(廣寒)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허구에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⁶⁾

황수신의 「광한루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광한루에서 바라본 주변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묘한 경관과 특이한 자태와 빼어난 모양과 기이한 모습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계절의 경관에 대하여 말로는 다할 수 없으니 기록하거나 말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계절은 맑고 시원하니 기후가 놀라울 정도로 가을처럼 시원하다. 동서남북을 빙 둘러 묘사하

5) 『龍城志』, 廣寒樓重修序.

6) 太虛蕩然無外 恍若憑虛御風 至,如障鳥西馳 星辰森列冰論 掛於盡棟 柱花寒於桷 彷彿乎九霄之上至免之宮也 廣寒之名 眞不可虛得也. 『龍城志』, 卷之十, <廣寒樓記>.

고, 원경과 근경을 차례로 그려내고 있다. 지리산에서 남원에까지 이르는 넓은 원경과 하늘 위 은하수, 울창한 초목 등은 경치가 수려한 곳을 찾아 심신을 수련한다는 호연지기의 심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광한루중수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광한루중수서>

광한루의 경치는 삼남(三南)에서 으뜸이라. 익성공(翼成公) 재상 황희로부터 경영이 시작되어 남원부 관찰사 민여공(閔汝恭)에 의해 중수되니 누각이 매우 아름다움이 나라 안에 알려지고 시문객에게 퍼져 백여년이 지났다. 정유년(丁酉年)에 이르러 왜구들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남원 부사 원신(元愼)이 남겨진 터에 작은 집을 지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고 무너지니 초석이 깨지고 섬들이 퇴락하고 숲에 가려 경관이 막히고 파묻혀 오가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였다.⁷⁾

황희는 선조 황감평이 지었던 일재(逸齋)라는 서실을 헐고 그 곳에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광통루라 하였다. 이후 세월이 오래되어 황폐해지자 1434년(세종16)에 당시에 남원부 관찰사였던 민여공에 의해 중수되었다. 이후 하동부원군이던 정인지가 1444년(갑자년)에 누각에 올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광한(廣寒)’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 뒤 1597년(정유재란) 왜구의 소행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부사 원신이 재건하고, 쇠락한 것을 신희의 동생인 신감이 1626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하였다.

광한루 누정시는 광한루의 중수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수 백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수차례 중수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한루에 부여한 의미들이 누정시를 짓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신희가 지은 <광한루기>는 누정의 실제적인 기능과 함께 선경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다. 누정의 기능은 박준규가 말한대로, 혼자이거나 여

7) 廣寒樓勝 甲於三南 經始於翼成相公 重修於府伯閔君筌 樓之勝 聞於國中 摛諸騷詠者 餘一百年矣 歲丁酉 爲海寇所燬 府伯元公愼 小楹於遺地 歲九而傾圮 破礎頽砌. 『龍城志』, 卷之十, 廣寒樓重修序.

럿이 모여서 자연을 바라보고 읊조리며, 학문을 논하는 벗이 오면 작시풍류를 하기도 한다. 떠나보내는 임이나 친구를 보내야하는 아쉬움에 시로써 마음을 위안하기도 한다.

3. 누정의 건립과 시단의 발전

누정은 당대의 교양인이라 이르던 지식인 선비들이 경영하였으며, 시인 문사들이 누정에서의 시적 교유를 통해서 작시와 학문을 논하기도 한다. 그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생활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로 많은 누정을 건립해왔다. 이같은 누정은 이를 건립하고 경영하는 자의 신분에 따라 관가(官家)의 누정과 사가(私家)의 누정으로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이념에 따라서 불가(佛家)의 누정과 유가(儒家)의 누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⁸⁾ 관가의 누정은 관영이 주가 되고, 사가의 누정은 주로 개인이 주가 돼서 유지된다. 왕실과 지방 관아에서 필요에 따라 지은 것은 관가의 누정이라 할 수 있고, 사대부들과 향리의 사족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누정은 사가의 누정으로 구별된다.

각종 사기(史記)와 지리지(地理志) 등의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누정이 조영되어 왔다.⁹⁾ 이는 주로 왕궁의 필요로 건립되었던 관가의 누정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궁실 조에 소개된 백제 동성왕 때의 임류각(臨流閣), 무왕 때의 망해루(望海樓)를 비롯하여 신라 문후왕 때의 고루(鼓樓), 경덕왕 때의 현용정(玄龍亭)·조추정(造秋亭)·신봉루(神鳳樓) 등도 왕실의 필요로 조영한 같은 성격의 누정(樓亭)이었다.¹⁰⁾

8) 박준규, 「호남의 누정과 누정시단」,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115쪽.

9) _____,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 제17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87, 1~28쪽.

10) _____, 「호남의 누정과 누정시단」,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115쪽.

관가의 누정은 왕가의 궁실 등 관영으로 발달하였으며 위엄과 나라의 발전을 상징으로 표방되어 경영되었다.

사가 누정 건립의 주체는 그 지방 유지들이었다. 건물에는 꼭 이름이 붙어 있으며 건물안에는 창건기, 재건기, 중수기 등의 문장과 시인들이 남겨 놓은 현판시(懸板詩)가 있다. 주변의 멋진 자연형태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누정 주변에 인위적으로 인공물을 첨가하여 의미상의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유명한 누정의 조건으로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건물의 규모가 크고, 당대의 교양인인 지식인들의 왕래가 많았고 남겨 놓은 누정시(樓亭詩)가 많은 것이어야 된다. 누정시가 창작된 계기로는 시적인 인연이나 교우 관계로 이루어진다. 조선조에 들면서 누정을 무대로 전개된 시작 풍류는 바로 고려조에서 전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누정은 당대의 교양을 갖춘 선비들이 작시(作詩)를 한 사람을 누정시인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가 누정시(樓亭詩)이다. 누정이 건립되면 누정 창건의 유례와 누정기문이 지어지며, 누정에 대한 제영이 이루어진다. 광한루의 누정시의 경우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름 있는 누정의 경우 현판에 보존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누정이 쇠락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준규는 누정의 기능을 ① 강학강도 ② 향약 등의 계획 및 씨족의 중회 ③ 치적의 표방 ④ 유관상경 ⑤ 작시풍류 ⑥ 활쏘기의 사장 등 여섯가지로 나누고, 이밖에 별장(別莊)·재실(齋室)·치농(治農)·측후(測候)·전쟁 때의 지휘 본부, 현관(現官) 및 승려들의 유희처 등으로 누정이 소용된 예를 말했다.¹¹⁾ 사가의 누정의 경우는 ‘강학강도’ ‘향약 등의 계획 및 씨족의 중회’이며 관가의 누정에서는 ‘치적의 표방’이 누정의 기능으로 보인다.

누정의 기능에서 흔히 수반되는 일은 ‘작시풍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풍류운사를 위해 누정이 건립되고 경영되기도 하였다. 누정을

11)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남지방 누정조사보고」, 『호남문화연구』제18집, 17~20쪽.

출입하는 선비들은 유흥상경의 흥취를 펴는 데에 특히 누정을 제목으로 한 제영을 이루기 마련이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작시를 누정제영이라 한다.

누정시인들의 작시는 한시형의 제형이 있는데 누정문학에서 송순(宋純, 1493~1583)의 <면양정가>(俛仰亭歌)나 정철(鄭澈, 1536~1593)의 <성산별곡>(星山別曲)과 같은 누정가사가 있고, 또 누정시조 등 국문시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누정한시는 조선조 한시인들이 선호하고 즐겼던 시문학이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정치적 파란으로 벼슬을 마다하고 은둔한 사족들이 누정의 경영에 많이 참여하였다. 경영에 참여하면서 호남의 누정문화에 나타난 시단의 대두와 성장의 시기를 15세기로 잡고 있다. 16세기는 우리나라의 누정시단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대로 보고 있다.

누정에서는 향약 혹은 동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선전기 전북의 누정에는 칠보면의 동학당(同學堂)이 있었는데 동학당은 불우현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이 건립한 15세기 누정이다. 정극인은 우리나라 가사의 첫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로서, 향리에서 거주할 때에 동학당을 경영하며 <고현향약>(古縣鄉約)¹²⁾을 이루어 고현동의 향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교육의 한 수단으로 보인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서는 전남지방을 시작으로 광주, 광산, 담양……등 2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현장은 물론이고 유적지 탐방을 위주로 하여 각 지방의 읍지와 군지, 그리고 여지승람 등 각종 문헌을 통해 조사 정리하였다.

처음은 전남지역의 누정조사를 시작되었고, 호남지역 누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93년도에 실시하였다. 전북지역의 조사는 비교적 1년 동안 이

12) 향약은 강압적 규약으로 일종의 제도적 의무감으로 시행되었는데, 정극인이 고현동에서 시행한 것이 일종의 향약인 '고현동향음주례'로서 이 의례를 통해서 孝悌와 敎學 및 이웃과의 친목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향촌사회의 순화를 위한 의식과 향민의 교화를 위한 정극인의 향토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육례, 불우현 정극인의 시가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2, 15쪽.

루어졌고, 누정조사를 실시하면서, 누정의 존재 여부와, 현존하는 누정의 실상과 유래를 알 수 있는 누정기 등을 추적하였고, 그곳에서 출입한 인물 등이 누정주인과 모인 분들과 남긴 누정시 등을 조사 발굴함으로써 누정문학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과 관계된 광한루는 남원뿐만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누정이다. 관련된 누정제영시는 많은 제영되었는데, 이 중에서 「용성지」의 이석형(李石亨)¹³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方丈山前百尺樓	방장산 앞에 백척의 누각이 있어
丹梯高架碧山頭	붉은 층계 높은 시렁은 푸른산의 머리오
水蓮平野烟光合	물은 들판으로 이어져 안개빛과 합쳐지는데
雲捲遙峯雨色收	구름 거치니 멀리 산 봉오리도 비를 거둔다.
臨水却疑天上坐	물가를 내려다 보니 도리어 하늘에 앉아 있는듯
倚風還似月中遊	바람에 의지해 돌아감이 달 속에서 노니는듯하다.
人間自由清虛府	인간이란 스스로 청허부에 살고자 하지만
何用臨臨世外求 ¹⁴	어찌 구구하게 세상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조선조 초기에 광한루를 출입하고 지은 광한루 제영으로는 이석형을 비롯하여 강희맹·성임·허침·서거정·이복남·김시습 등의 시가 있다. 앞의 4자는 같은 운을 취하여 제작한 누정시이다. 광한루는 누정의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명월과의 관계에서 취한 누정명이다. 광한루의 제영을 보면 대

13) 1415년(태종 15)~1477년(성종 8).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현(樛軒). 대호군 회림(懷林)의 아들이며, 김반(金泮)의 문인이다. 1441년(세종 23)에 사마시에 합격, 이어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고, 이듬해에 집현전부교리에 임명되어 14년 동안 집현전학사로 재임하면서 집현전의 응교·직전(直殿)·직제학을 두루 역임하였다. 집현전응교로 재임한 1447년 문과증시에 합격하였으며, 왕명에 의하여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로 학문에 진력하였다. 1455년(세조 1)에 첨지중추원사, 뒤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대학연의(大學衍義)와 『고려사』에서 권계(勸戒)할 것을 덧붙인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 21권과 저현집(樛軒集)과 편저로는 역대병요(歷代兵要)·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이 있다.

14) 『龍城志』, 卷之二.

부분이 달세계를 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시에서도 ‘의 이석형의 ’淸虛府‘는 물론, 성임의 시에 쓰인 ’淸虛‘나 허침의 시에 쓰인 ’淸虛府‘ 등이 달세계를 연상시키고 있다. 이석형의 제영도 같은 성격의 작시라 할 수 있다. 시에 쓰인 ’淸虛府‘의 시어는 광한루의 선경을 시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한루는 조선시대 초에 설립되어 남원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시인과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대표적인 누정이다. 경치를 즐기며 희노애락을 즐겼던 장소이기도 하다. 많은 시인묵객들은 이곳에 찾아와서 감회에서 읊은 누정문학은 당시의 사대부들과 함께했던 기생들도 자연스럽게 읊게 되었다고 보인다.

4. 옛날기생·봉선·연옥의 누정시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기생이라하면 조선시대에는 예인으로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다. 시 서화에 능하며 당대 문인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시를 마음껏 뽐내었다.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지만 정신세계만은 자기의 것이었다. 당시 기생은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지만 문학적으로는 최고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생활에서는 양반사대부와 함께 살아서 예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황진이(黃眞)의 실력은 당시 양반 사대부들도 인정한 부분이며, 이매창(李梅窓)은 고창에서 시비를 세워줄 정도로 유명하다.

남원의 용성지에는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여류의 시가 전하고 있다.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기생(妓生)

織罷冰綃獨上樓 직녀 흰 비단 짜는 일 그치고 홀로 루에 오르니

水晶簾外桂花秋 수정발 밖엔 계수나무 꽃 환한 가을이로다.
 牛郎一去無消息 견우는 한번 떠나 소식이 없으니
 烏鵲橋邊夜夜愁¹⁵⁾ 오작교 가에서는 밤마다 수심만 어린다.

위의 시는 옛날기생이 지은 누정시이다. 당시 기생의 수가 15명, 동기, 4명, 전악 2명, 악공 1명¹⁶⁾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기생 15명중 한명의 누정시일 것으로 본다. 기녀가 남긴 시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는 이름이 한동안 기억되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 차차 잊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체가 낮거나 특별히 행적마저 없으면 시를 짓자마자 바로 무명씨로 편입되게 되었을 것이고, 옛날기생의 시도 이런 연유로 이름이 없는 걸로 되었을 것이다.

누정편 구지에 이어 신지가 기록되었는데, 맨 먼저 송강 정철, 사가 서거정, 이복남, 김시습, 백헌 이경석, 점필재 김종필, 윤근수, 여영봉에 이어 옛날기생의 시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광한루는 월궁설화와 신선설에서 시작하여, 견우와 직녀 설화의 무대로서 알려져 있다. 옛날기생의 시에서는 광한루를 배경으로 하여 직녀가 비단 짜는 일을 그만하고 누각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기생인 자신이 누각에 오름을 빗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떠난 임이 소식이 없음을 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누정미를 의인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며, 진솔한 풍경을 시상으로 읊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의 누정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客館簫條車馬稀 나그네 숙소는 쓸쓸하니 거미조차 드물고
 小樓高壓夕陽輝 작은 누각의 고압적인 자태는 석양에도 빛이 난다.

15) 古妓生詩 織罷水綃獨上樓 水晶簾外桂花秋 牛郎一去無消息 烏鵲橋邊夜夜愁 『龍城誌』 권지 이

16) 妓生十五名 童妓四名 典樂二名 樂工一名 『龍城誌』 教坊新增 .

一聲長笛人如玉 긴 피리부는 소리 옥소리처럼 들리니
恰是姬娥秦羽衣¹⁷⁾ 흡사 향아¹⁸⁾가 날개옷을 입고 연주하는 것이 아닌지.

위의 시는 『용성지』에 나오는 김시습의 누정시이다. 옛날기생의 누정시의 앞에 나온 시이다. 김시습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방랑의 길을 걸었던 분이다.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려니 쓸쓸함을 이야기 하면서, 누각의 아름다움은 석양에도 빛이 난다고 했다. 광한루의 누정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석양의 빛에 비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김시습의 누정시를 옛날기생의 누정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생의 누정시가 당시의 사대부와 비교했을 때 별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당대의 사대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으므로 기생시가 『용성지』에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음으로는 기생 연옥과 봉선의 시이다. 먼저 기생 연옥의 누정시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기생 연옥(蓮玉)

舞罷霓裳獨倚樓 춤을 멈추고 홀로 누각 끝에 기대니
鵲橋明月半簾秋 오작교 달빛이 주렴 사이로 환하다
妾身欲守成娘節 첩의 이 몸 춘향 절개 지키고 싶은데
不見李郎空自愁¹⁹⁾ 이몽룡을 못 만나니 수심에 겹구나.

위의 시는 기생 연옥의 시이다. 춘향가의 주인공인 이몽룡이 시어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조의 광한루 위에서 춤추던 기생이 잠시 멈추고 누각에 기대어 광한루를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달빛에 비치는 오작교 다리가 환하다. 문득 춘향이가 떠오르면서 이몽룡 같은 낭군을 만나 춘향이의 절개를 지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서럽기만 하다. 이몽룡

17) 『용성지』 권지 이.

18) 중국 고대신화에 나오는 월신(月神). 향아(姬娥)·상희(嫦娥)라고도 한다.

19) 『광한루예찬시선』, 남원시.

같은 멋진 연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인의 소박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기생의 시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옥의 시에서는 광한루와 오작교를 배경으로 한 누정미와 우아미²⁰⁾가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상(愛想)이다.

다음으로 기생 봉선의 누정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생 봉선(鳳仙)

乘鸞夜入廣寒樓 신선이 탔던 난새(상상의 새)를 타고 광한루에 드니
十二丹梯欲盡頭 아름다운 열두 계단 난간 위까지 올랐네.
願乞紫皇金鳳詔 원하옵나니 금봉황을 시켜 상제께 전합니다.
人間禁得別離愁²¹⁾ 인간에게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하소서

위의 시는 남원 권변의 수기 봉선의 누정시이다. 신선이나 상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도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는 유교의 나라이지만 사대부나 일반 민중 속에 도교가 침투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선, 난새는 상상 속의 신이나 새이다. 인간에게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해달라고 옥황상제께 비는 걸로 보면,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선이 탔던 새를 타고 광한루에 오르는데 아름다운 열두 계단까지 오른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만나면 헤어져야하는 이별의 연속이기에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오죽하면 옥황상제께 빌면서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20) 미에는 예술미와 자연미가 있는데 예술미는 정신으로부터 탄생한 미이기 때문에 정신과 정신물의 소산이다.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을 예술미로 보고 있는데, 정신이 야말로 참다운 것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 미는 미자체보다 숭고한 것에 참여하고 숭고함을 통해 생겨날 때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다. 헤겔, 두행숙옮김, 『헤겔미학』, 나남출판, 2001, 28~29쪽.

21) 『광한루예찬시선』, 남원시.

떠나는 임을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잊으려고 한다. 임을 사랑했던 것이 너무 커서 이별의 아픔까지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옥향상제께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해달라고 하지만 봉선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련(悲戀)으로 보인다.

조선조 여인 중에서 ‘신선’이라는 낱말을 등장시켜서 사용한 사람은 허난설헌²²⁾이다. 허난설헌은 가정적인 불운을 현실적인 생활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썼지만, 기생 봉선의 경우는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정적인 불운은 없었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이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만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봉선(鳳仙)은 춘향 사당을 만들 때 남원권번의 수기(首妓)로 진주 진양권번 부산의 동래권번 평양권번 개성권번 들을 독려하여 춘향사당(春香祠堂) 건립의 모금을 주도했다. 이후 춘향제사의 제관은 전국 권번의 기생들이 맡았으며 최봉선(崔鳳仙)은 제주가 되었다. 이후 제주인 봉선은 제수답(어현동 주천땅 다섯마지)을 기증하여 그 소출로 춘향제사의 경비를 충당케 하였다고 한다.

춘향제사는 1949년 제19회 때까지 권번에서 주관하였는데 각 지방의 권번 기생들이 참여하여 제관(祭官)이 되었다. 제주는 줄곧 남원권번의 수기 최봉선이 맡아보았고 제사비용은 초기에는 제사에 참여한 제관들의 현금으로 충당하였다. 1950년부터는 제주인 최봉선이 기증한 제수답의 소출로 충당하였으며 이때부터 민간주도의 제례가 행정기관인 남원군에서 주관하게 되어 단순한 제례에서 향토문화제전의 성격인 춘향제전으로 성

22) 일반적으로 여류 한문학은 기녀가 담당하였지만, 일부 사대부 여성들 가운데서도 한시에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간혹 있었다. 그 가운데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조선중엽 사대부들이 다루지 못하는 여인의 한과 사랑의 정서를 시로 새겼다. 정병현외,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2010. 97쪽.

허난설헌의 남아 전하는 한시 작품을 보면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며 현실을 초탈하려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난설헌의 시를 보면 ‘신선’과 ‘꿈’이 등장한다. 시 속에 등장하는 선계는 가정적인 불운을 현실적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탈의 염원을 드러낸 이상세계라 할 수 있다. 210여수의 시 가운데 ‘신선시’ 계열이 무려 128수나 된다.

격이 바뀌었고, 제관고 종래의 기생들에서 관내 여학생들로 바뀌었으며 명창대회와 춘향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결들인 향토문화제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³⁾고 보인다.

남원의 봉선은 시에서도 양반들과 비교했을 때 잘 지었고, 기부문화에서도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원 춘야제사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은 기생으로 부터임을 알 수가 있다.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에서 보면 평양 기생들의 600원 기부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평양 빈민들을 위하여 기성권번의 기생아가씨들은 평양부 사회교□□□□ □ 하여 300원 그리고 또 □□□ 300원을 동정하였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빈민에게 기부금을 내놓는 등 권번의 동정에 대하여 빈민들은 감격하여 마지않는다. (조선중앙일보 1935.2.1)²⁴⁾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을 보면 평양의 빈민들을 위하여 기생들이 300원을 기부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의 기부문화는 남원 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

남원의 춘향사를 사당을 짓게 되는데도 여러 기생들이 모금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춘향사당이 완성하게 된다.

남원의 춘향사 사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현순은 지역유지 강봉기와 남원 권번선생 이백삼, 최봉선(당시 남원읍 금리, 부산관 경영, 현 감을슈퍼 부근) 정광옥, 이흥두, 조기화등을 규합하여 당시 남원의 19개 읍면을 다니면서 기금을 모금하였고, 기생들이 앞장서 진주, 평양, 개성 등 전국의 유명한 권번(券番)을 찾아다니면서 성금을 모금하여 1931년 3월 1일 사당을 건립하고 그 해 6월 20일 단오날 준공식과 함께 최초의 춘향제사를 올렸다.²⁵⁾

23) 윤영근, 『광한루 예찬시선』, 남원시, 1999, 98쪽.

24) 손종흠외,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 자료편 2, 보고서, 2009, 333쪽.

25) 윤영근, 『광한루 예찬시선』, 남원시, 1999, 36~37쪽.

당시 남원의 기생들은 춘향사당의 모금운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춘향제사를 지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원의 유지와 남원권변기생인 최봉선이 주가 되었고, 이 모금운동은 남원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경찰의 갖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제관이 여자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맺음말

『용성지』에는 광한루의 중수기와 함께 여류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누정을 무대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사람을 따로 누정시인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를 누정시이다.

용성지에 광한루에 대한 글이 많이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광한루는 남원뿐만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누정이다. 광한루는 조선조 초에 설립되어 조선시대를 관통한 남원의 역사적 상징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경치를 즐기고 만남과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성들의 편견적인 의식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류시조는 그 작자가 대부분 기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몸은 비록 천민에 속하나 정신세계만은 남달랐다. 그들의 시조나 교양은 당시 사대부들과 견주어 어느 면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왜냐하면 양반사대부들과 풍류 속에서 상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이른바 ‘여류 누정시’가 생기게 되었다고 보인다. 누정시는 사대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기에 당당히 『용성지』와 광한루 현판에 올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었다.

『용성지』에 옛날기생이 지었다는 누정시가 전해오고 있다. 이는 당대의

교양이라 이르던 선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실려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옛날기생의 누정시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에 떠난 임이 소식이 없음을 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누정미를 의인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며, 진솔한 풍경을 시상으로 읊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생 연옥의 누정시에서는 춘향가의 주인공인 이몽룡이 시어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조의 광한루 위에서 춤추던 기생이 잠시 멈추고 누각에 기대어 광한루를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달빛에 비치는 오작교 다리가 환하다. 문득 춘향이가 떠오르면서 이몽룡 같은 낭군을 만나 춘향이의 절개를 지키고 싶고 이몽룡 같은 멋진 연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인의 소박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연옥의 시에서는 광한루와 오작교를 배경으로 한 누정미와 우아미가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상(愛想)이다.

봉선의 누정시에서는 신선이 탔던 새를 타고 광한루에 들면서 옥황상제께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 떠나는 임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잊으려고 한다. 옥황상제께 이별의 근심을 잊게 해달라고 하지만 봉선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련(悲戀)으로 보여진다. 옛날기생 연옥과 봉선의 누정시는 자유로움 속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탈속의 경지를 가면서도 조화를 잃지 않으면서 정한(情恨)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龍城志』

『남원지』

김병태, 『광한루 불멸의 나라』. 디자인흐름, 2010.

박준규, 「호남의 누정과 누정시단」,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115쪽.

,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제17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87, 1~28쪽.

, 「호남의 누정과 누정시단」,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115쪽.

박명희, 「지역전통의 형성과 누정문학의 전개」, 『한국언어문학』 제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손중흠외,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 자료편2, 보고서, 2009, 333쪽.

유옥례, 「불우헌 정극인의 시가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2, 15쪽.

윤영근, 『광한루 예찬시선』, 남원시, 1999, 36~37쪽, 98쪽.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남지방 누정조사보고」, 『호남문화연구』 제18집, 17~20쪽.

정병현외,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2010.

정훈, 「남원광한루의 누정제영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헤겔, 두행숙 옮김, 『헤겔미학』, 나남출판, 2001. 28~29쪽.

투고일 : 2011년 7월 12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Abstract>

A Study on Poetry of the Pavilion by Women Poets in 『Yongsungji』

Yu, Yuk-rye

『Yongsungji』 was the old name town site of Namwon in which the rehabilitation history of Gwanghanru and poetry of the pavilion written by women poets have been inherited. The persons who wrote poetry of pavilions were called 'Nujeong poets' by educated people and the poetry written by them was called 'Nujeongjeyoungsi(poetry of pavilion)'. When a pavilion was founded, the history and news of the foundation, and the poetry under a title were written. Poetry on pavilion might be preserved in case that the pavilion was famous. However, most of the pavilions were destroyed or lost while they were rehabilitated.

『Yongsungji』 has poetry written by woman poets and Giseang, and although Nujeongsi(poetry of pavilion) were dominated by men of noble. Inscribed on the hanging boards of Gwanghanru, poetry were written by Bongsun and Yeonok, which stood comparison with poetry by men of noble at that time. Giseang with lower social status could wrote poetry very well and Choi Bong-sun led in raising money for building Chunhyang Shrine. Giseang of Joseon period created the best culture in literature and decorated a page of history.

Key-words : Yongsungji, poetry of the pavilion by women poets,
Nujeongsi(poetry of pavilion), Namwon Gwanghanru, Bongsun
and Yeonok

